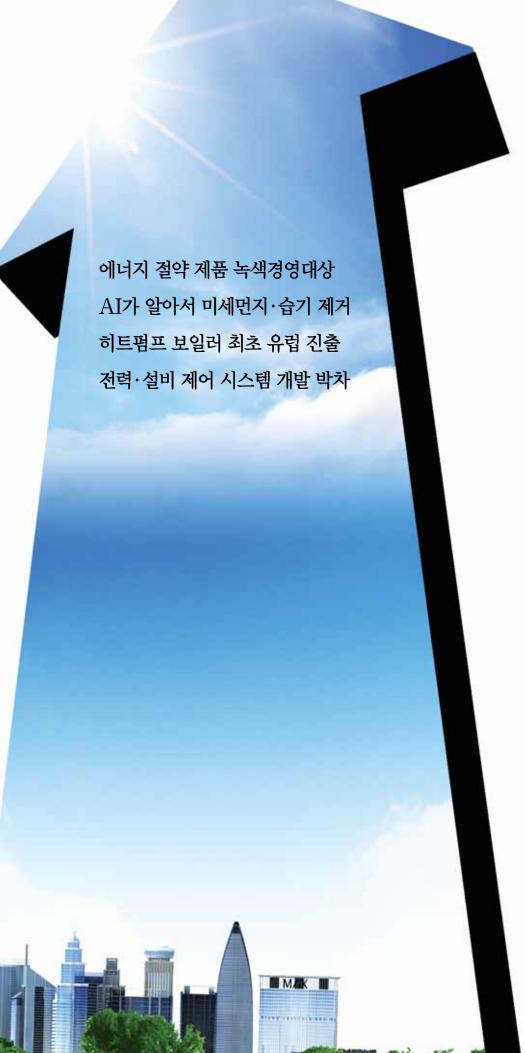
# 110년 기술력 '친환경 에어컨' 녹색경영 新바람





## 캐리어에어컨

최근 국가적으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에너지 절 감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냉난방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 나면서 에너지 소모가 많은 냉난방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에어컨 업계 3위 기업인 캐리어에어컨은 2017년형 '에어로·제트 18단 에어

컨'을 비롯한 고효율 냉난방기 신제품을 대거 출시했다. 캐리어에어컨은 110년의 공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환경경영에 힘써 지난해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었다.

캐리어에어컨은 글로벌 캐리어와 오텍의 합작법인으로 자본 및 기술 합작을 통해 친환경, 고효율 제품을 제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에어컨 분야 선도기업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최근에는 BIS(Building & Industrial System) 전문기업 으로서 맞춤형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는 빌딩에너지 솔루션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고 있다.

강성희 캐리어에어컨 회장은 "캐리어에어컨은 110년 역사의 에어컨 기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선 보이고 있다"며 "향후 빌딩의 모든 시스템을 자동 제어하는 BIS(빌딩 인텔리전트 솔루션), 전력피크를 관리하는 ESS(에너 지 저장 시스템) 사업에 진출해 글로벌 신기후체제에 대비할 것이다"고 밝혔다.

### 글로벌 캐리어-오텍 합작 캐리어에어컨







### 인공지능 에어로·제트 18단 에어컨

2003년 국내 최초로 고효율 인버터 벽걸이에어컨 을 선보였던 캐리어에어컨은 올해 신제품 '인공지 능 에어로·제트 18단 에어컨'을 출시했다. 국내 최 초로 도입한 '사계절 원터치 컨트롤 기능'을 업그레 이드해 냉난방은 물론 공기청정, 제습 기능 사용 시 에도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줄였다.

'인공지능 에어로·제트 18단 에어컨'은 캐리어의 고효율 인버터 기술을 적용해 전 제품에 에너지 소 비효율 1등급을 달성했다. 또한 더 진보된 '인공지 능 쾌적 맞춤 바람'으로 과도한 냉방은 방지하면서 최적의 실내 상태를 구현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특히 2017년형 '에어로·제트 18단 에어컨'의 '울트 라 공기청정'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울트라 에어클리닝 시스템(ifD)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채택 해 PM2.5의 극초미세먼지를 99.9% 제거할 수 있다.

'울트라 제습'은 에어컨 스스로 주변 환경을 분석 하여 최적의 실내 습도를 제공한다. 캐리어의 절전 제습 기능으로 최대 24% 전기료를 절감해 7660원 이면 한 달 사용이 가능하다.

### 인버터 냉난방기

경상업용 냉난방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경쟁 력을 보유하고 있는 캐리어에어컨이 새롭게 선보인 '인버터 냉난방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달성해 하루종일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상 가, 사무실 등의 공간에 적합한 제품이다.

'인버터 냉난방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경상 업용 제품 중 세계 최초로 18단계 바람 조절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한적한 카페나 사무실에는 바람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미풍을, 열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식당에서는 빠르게 실내온도를 낮춰주는 허리케인 바람을 구현

또한, 동급에서는 최초로 스스로 전류 값을 제어 하는 과부하 발생 방지 기능과 열교환기 곰팡이 발 생을 방지하는 셀프 크리닝 건조 기능을 탑재했다. 저온 난방능력 또한 기존 자사제품대비 최대 30%

이외에 '인버터 냉난방기'는 공간활용도가 높은 천장 카세트형과 중소형 빌딩에 최적화된 미니 멀 티 에어컨 등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 인버터 하이브리드 보일러

캐리어에어컨의 '인버터 하이브리드 보일러'는 국내 히트펌프 보일러 판매시장에서 최초로 누적 판매량 1만대를 돌파한 고효율 전기보일러 제품이 다. 2015년에 이미 뛰어난 에너지 절감 및 CO2 감축 기술력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과 주관하는 에 너지위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인버터 하이브리드 보일러'는 에어컨의 핵심 기 술인 히트펌프 원리를 적용해 심야 전기 보일러 대 비 최대 60%의 전기요금을 절감한다. 글로벌 캐리 어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실시간 변동하는 전 력 부하상태를 감지해 냉동사이클 구성요소를 최적 의 상태로 제어한다.

특히 영하 20℃의 한랭지역에서도 난방과 80℃의 고온수를 공급할 수 있고, 업계 최고 수준의 저소음 (53dBA)을 실현한 점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최근에 는 냉방까지 가능한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히트펌프 보일러 최초로 유럽시장에 수출했 으며, 중국의 안전인증제도인 CCC 인증 획득도 완 료했다. 월 세계 3대 냉동공조전시회인 중국 상해 제냉전에 전시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1577-2859



·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과 산학협력 체결

